

대회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전국 21개 지회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오늘 한마음대회를 통해 우리 전기인이 한 가족임을 재확인 하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전기인의 기상과 활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전기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과 가슴을 열고, 마음껏 뛰고 달리며, 체력도 단련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기인 여러분

스포츠의 참된 정신은 정해진 규칙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있습니다.

지역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울려 즐기는 여유를 갖는 것도 스포츠의 또 다른 매력인 만큼,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전기인 한마음 대회'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다진 체력과 결속력을 밑거름 삼아 전력산업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전기안전에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선수단과 임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